



괴산에서 치유농업

안미선(괴산군의회 의원)

치유농업은 이미 세계적인 농업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대표적으로 치유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케어팜’을 들 수 있다. 노인, 장애인, 장애 청소년 등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케어, 농작물케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농작물을 키워 판매한다. 운영경비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작물 판매 등을 통해서 충당한다. 치유와 복지 그리고 고용의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치유농업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었으며, 우리 군도 제320회 임시회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괴산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괴산군이 치유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진과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치유농업 관련 자원, 시설,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 농가 역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치유농업을 통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일반 농사와의 차이점은 건강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세계행복지수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3)에 따르면, 핀란드는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가 2위, 아이슬란드는 3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137개국 중 57위를 차지했는데,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게다가, 2018년~202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등을 차지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년 전부터 치유(힐링), 웰빙, 였로,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등이 TV를 비롯한 미디어에서 등장했다. 과거에는 성공, 경쟁 등의 단어들만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행복, 존중, 배려, 가족과 같은 단어들도 주목받고 있다. 나와 우리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고 치유하며 건강한 삶을 살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으며, 삶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다.

치료가 상처나 증상을 다스리는 의학의 영역이라면, 치유는 치료를 통해 상처가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에 관여하는 요법 등을 담은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치유와 농업이 결합된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를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의 범위는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 및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충북도는 농촌교육농장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마음치유농장’ 6곳을 선정했으며, 괴산에서도 한 곳이 선정되었다.

앞으로는 치유농업시설의 선정 및 관리, 기존 체험농장과 차별화 및 특성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치유농업사 양성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치유농업 관련하여 도시민들이 괴산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관광으로 이어지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해본다.